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체101(2012). 3
23
금요일
음력 3. 2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핵안전수뇌자회의》의 정체

이제 며칠 안있어 서울에서 이른바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이 열리게 된다.

오래전부터 이 《회의》에서 공화국의 《핵문제》를 걸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오던 남조선보수패당이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때를 만난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난 19일 리명박은 《긴급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와 《라지오연설》이라는데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핵무기의 장거리운반수단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느니,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관련국정상들과 긴급히 대응》해나가겠다느니, 이 《회의》가 《북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것은 명백히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공화국의 핵 및 위성발사문제를 걸고드는 반공화국대결마당으로 리용하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불순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사실 수십년전부터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화한 남조선에서 핵안전을 론하는 회의가 열린다는것자체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국제적망신이다.

미국이 1950년대부터 수많은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저들의 핵전초기지로 만들어놓았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또 남조선당국이 지난 수십년간 핵무기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는것도 공개된 비밀이다.

《유신정권》시기부터 남조선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미친듯이 발광해왔으며 최근년간에는 세상의 눈을 속여가며 플루토니움과 고농축우라니움까지 추출해냈다는것이 드러났다. 남조선에는 이미 무기급 플루토니움을 36t이나 추출해낼수 있는 수천t의 핵폐연료가 있다.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끼에 투하한것과 같은 핵무기 3 000여개를 만들수 있는 이러한 방대한 량의 핵물질이 뻐젓이 보관되여있는 남조선에서 그 무슨 핵무기와 핵물질의 전파를 방지하는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벌려놓는다는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대협잡극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어떤 나라든 이 《회의》에 참가하는것은 두고두고 수치와 오욕으로 남게 될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북위협설》을 거들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 광분하는것은 저들에게 향한 분노한 민심의 예봉을 딴데로 돌리고 다가오는 《선거》의 참패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이기도 하다.

집권기간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말아먹고 남조선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비롯한 첨예한 사회갈등들을 더욱 격화시키였으며 엄청난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민심은 물론 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버림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안팎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구실로 저들의 《치적》을 광고하여 몸값을 올리는 한편 《북핵문제》를 부각시켜 《안보위기》를 고취하는것과 같은 기만술책으로 보수세력과 중간층을 끌어당겨보려는 너절한 오그랑수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보수패당은 지금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계획이 발표된것을 더없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핵운반수단능력의 확대》라는 생억지까지 쓰면서 북남관계에서의 렬세를 만회하고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하는 한편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분위기를 조성하여 조미관계진전을 차단하며 유관국들사이에 쐐기를 박아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이 일부 참가국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공동성명》이나 《선언서》같은것을 채택해보려는 흉계까지 꾸미고있는것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원래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은 그 취지자체가 국가가 아닌 개별적인 《테로집단》과 《테로분자》들의 핵공격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표방하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공화국의 핵 및 위성발사문제가 의제로 론의될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의해 어느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핵전쟁광신자들이 남조선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벌려놓는다면 그것은 저들이 벌리려는 핵전쟁을 합리화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넣기 위한 핵전쟁모의판이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미국은 이 회의를 구실로 남조선에 오는 미국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까지 나가 《북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라는 의지를 나타낼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조선당국자들이 련일 나서서 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별도로 론의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회의가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마당으로 만들어놓으려는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소동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공화국은 이미 이 《회의》에서 그 무슨 《북핵문제》와 관련한 《성명발표》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인류공동의 간절한 바람인 진정한 핵안보와 근본적인 핵안보를 철면피로 외면하고 속임수로 치장하는 핵안보정상회의》, 《핵군축을 통한 핵무기없는 세계의 가시적인 성과, 우리의 핵심관심인 평화협정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해결을 외면한 회의》라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유치한 광대극은 미국의 특등핵전쟁하수인인 남조선보수패당의 위험한 북침핵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상전과 야합하여 벌리는 이 광대극이 북남관계에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정권》심판론을 《북풍》으로 잠재우려는 잔꾀

또 《북풍》소동이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보수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이 총동원되여 《북이 각종 선전매체와 기구를 동원해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있다.》느니, 《인터네트를 통해 여론조성작업을 벌리고있다.》느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여론을 퍼뜨려 〈선거〉판세를 뒤집으려 한다.》느니 뭐니 하며 고아대고있다.

물론 《남남갈등을 조장한다.》, 《국론을 분렬시킨다.》는 늘 하던 그 타령, 그 장단도 빠지지 않았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써먹군 하는 《북풍》소동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현되고있는것이다.

《북풍》으로 이번 《총선》에서 보수집권세력을 기어이 심판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눈을 흐려놓고 민주개혁세력을 《친북세력》으로 몰아가자는것이다.

그래서 북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발사도 남조선의 《친북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4.11총선용》이라고 걸고들면서 이를 《안보》문제로 부각시켜 인민들의 반《정부》기운을 무마시키려 하고있다.

그뿐아니라 《북풍》으로 파탄된 《대북정책》문제, 날조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문제, 강도적인 제주도해군기지문제, 허울뿐인 《반값등록금》문제, 민간인불법사찰문제, 썩은내나는 리명박과 그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문제, 황당한 《4대강》문제 등 저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북풍》소동은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풍》소동은 오는 《선거》에서 저들에게 최대로 불리한 《정권》심판론을 잠재우고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 보수집권세력의 음흉한 모략이며 대결정책의 총파산으로 궁지에 몰린 저들의 위태로운 처지를 모면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리명박역적패당이 몰아오는 《북풍》은 오히려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있다.

《〈총선용 북풍〉몰이로 표모으는 전쟁당 〈새누리당〉 심판하자!》는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집권세력의 《북풍》소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각오와 의지를 안고있으며 재집권을 위한 보수집권세력의 《북풍》소동을 《정권심판》의 폭풍으로 징벌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공천》을 통해본 독재적근성

오는 4.11《총선》을 위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후보자공천》이 얼마전에 막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이번 《공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느니, 《변화의 요구에 맞게 진행된 공천》이라느니 뭐니 하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의 여론들은 박근혜파가 《총선》을 앞두고 알륵관계에 있던 리명박패와 당내의 적수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당을 사당화하여 집권야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공천》을 리용하였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보수정당의 내부에서도 이에 동감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여론들의 주장은 결코 틀린 소리가 아니다. 현실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4년기간 저들이 저지른 죄행으로 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받자 《쇄신》의 미명하에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수정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온다 어쩐다 하며 마치나 큰일이나 칠것처럼 분주탕을 피웠다.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어보기 위한 기만극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쇄신》의 간판뒤에 숨은 또 하나의 진속이 이번의 《공천》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 20일에 끝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후보자》로 《공천》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친박근혜계이고 친리명박계는 가물에 콩나오듯 드문드문 박혀있는 정도이다.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틀어쥔 박근혜파가 《쇄신과 변화, 물갈이》를 떠들며 친리계를 대대적으로 숙청한것이다. 친박계가 그나마 친리계의 인물 몇명을 《공천》한것은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으로 사당화되였다는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을 사당화하려는 박근혜의 속심이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친미사대정책과 부산저축은행사건, 디도스공격사건, 전당대회돈봉투사건 등 온갖 부정부패사건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될 때 박근혜에게 위원장을 하라고 권고하였지만 그는 당권이 없는 허수아비위원장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당권을 자기에게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당시 당내에서 실권을 쥐고있던 친리계를 몰아내기 위한 첫 요구였지만 친리계는 구차한 정치적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새누리당》사당화는 《공천》을 계기로 절정에 달한것이다.

녀자가 독심을 먹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번의 《공천》은 비주류로 버림과 모욕만을 받던 친박계가 주류로 날뛰던 친리계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였다. 《총선》을 위해 《새누리당》은 새 인물들을 불러들이면서 친리명박인물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친박근혜인물들은 그가 친일을 주장했든, 부패전력이 있든 서슴없이 받아들이였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친리세력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 인물들을 들여앉혀놓았다. 그속에서 박근혜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자들도 례외없이 쫓겨났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남조선의 여론들은 《새누리당》의 《공천》이 2008년 《총선》때를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친리계가 친박계를 무리로 내쫓았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되였다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쇄신과 변화의 진정성》이 없는 《보복공천》으로 비난하였다.

지어 《새누리당》안에서까지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공천〉을 웨쳤지만 4년전의 보복공천, 표적공천, 밀실공천을 반복하고있다.》,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특정인을 위해 당의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골몰하고있다.》는 울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박근혜의 치마바람에 밀려난 탈락자들이 지금 《공천을 두고 썩은 내가 난다.》며 《탈당》과 무소속출마로 불평을 부리고 《위협》도 해보려 하지만 그의 랭혹하고 독재적인 기질앞에서는 맥도 못추고있는 형편이다.

《새누리당》을 사당화한 박근혜의 이번 《공천》놀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신》독재자의 망령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새누리당》을 조소하는 남조선인민들

《성나라당》이 《성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후보공천》과정이 반역당의 고질적인 녀성천시악습을 또다시 드러낸 계기로 되여 사람들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새누리당》은 이른바 《개혁공천》의 간판밑에 《국회의원후보공천》에서 녀성이 차지하는 비률을 30% 보장하겠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회의원후보》들가운데서 녀성은 고작 7%에 해당한 16명에 불과하다.

더우기 이번 《공천》과정에 녀성들을 비하하고 지어는 강간범죄까지 저지른 인물들이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된것으로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반역당이 사회적여론이 무서워 부랴부랴 이를 취소하였지만 《국회의원후보공천》과정은 《색정당》, 《성추행당》으로서의 반역당의 더러운 체질이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누리당》이 녀성들을 천시하고 희롱하는 불망종들이 득실거리는 《색정당》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녀성기자에게 성추행을 하고 대낮에 술집에서 녀접대원을 상대로 추잡한 행위를 하는 등 남조선에서 정치인들의 녀성희롱사건이 터질 때마다 걸려든자들은 신통히도 이 당패거리들이다.

2009년에도 이 당의 강용석이란자가 방송원을 지망하는 녀학생에게 수치스러운 쌍말을 하여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다.

남조선녀성들은 지금도 2007년 《대통령선거》당시 리명박이 녀성들을 천시하고 깔보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은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그때 리명박은 주요일간지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벌린 먹자판에서 외국의 유흥업소에 드나들던 이야기를 자랑삼아 늘어놓으면서 좋은 《마싸지녀》를 고르는 방법도 《인생의 지혜》라는 상스러운 말을 공공연히 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었다.

리명박이 《대통령》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한짓도 《녀성가족부》를 대폭 축소하고 그 예산을 무려 95%나 삭감함으로써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보호정책들을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든것뿐이다.

이로 하여 현재 남조선녀성 1 000명당 18명이 성범죄피해자로 되고 녀성근로자들의 50%이상이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고있으며 결혼한 녀성의 3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리명박《정부》가 《선진국진입》을 부르짖고있지만 《녀성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리명박집권기간 녀성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였다.》고 폭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실용정권》이 등장한 후 녀성들의 존엄과 육체를 마구 짓밟는 미군의 성범죄도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초에 미군야수들이 70대 로인을 성폭행한데 이어 그해 9월에 또다시 10대의 나어린 녀학생을 상대로 무려 4시간동안이나 갖은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사실들은 단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녀성을 노리개로, 상품으로밖에 보지 않는 현 보수집권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으니 어찌 남조선이 녀성인권의 불모지, 녀성들의 지옥으로 전변되지 않겠는가.

지금 《새누리당》이 《복지확대》니, 《영육아보육지원》이니 하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인심을 사고 그것을 《총선》에 리용하여 한표라도 얻어보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지난 시기 《성나라당》으로 지탄받아온 《새누리당》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누리당》으로 되였다고 야유조소하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누리당》이 집권하면 남조선녀성들의 삶과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게 될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

녀성들을 인간으로가 아니라 한갖 성노리개감으로 치부하며 고통과 불행만을 가중시키는 호색한들의 집결처 《성누리당》과 같은 보수세력을 남조선녀성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것이다.

림소영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